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 효과

김하강¹, 김수진²

¹목포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전남대학교 간호대학 · 간호과학연구소 교수

Effectiveness of an Interactive Cinema Therapy Program for Prevention of Adolescent School Violence

Kim, Ha Gang¹ · Kim, Soo Jin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Mokpo Catholic University, Mokpo,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Gwa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n interactive cinema therapy program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mong adolescents. **Methods:** The study used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test design. The 62 participants were selected from juvenile delinquents on probation (29 for the experimental group and 33 for the control group) in J city. The data were analyzed with a χ^2 -test, t-test, and paired t-test, using the SPSS 12.0 program. **Results:** After the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in self-efficacy ($t = -9.57, p < .001$), anti-sociality ($t = 5.76, p < .001$), social skills ($t = -10.50, p < .001$), and aggression ($t = 4.41, p < .001$), but no significant changes in emotional stability ($t = .018, p = .986$) and anger ($t = .059, p = .953$). **Conclusion:**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interactive cinema therapy program was effective in preventing school violence among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 Schools, Violence, Motion picture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방과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폭력은 점점 더 성인범죄로 이어지거나 모방되는 경우가 많고, 동급생이나 선배 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점차 집단화 및 조직화되어지며, 저연령화 되고 있다[1]. 또한 여학생들의 폭력관련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불안과 공포, 우울과 자살 등의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2]. 또한 학교폭력은 피해생만이 아닌 가해 학생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데, 이들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가해자가 되거나 범죄, 알코올중독과 같은 다른 문제행동이 동반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3].

학교폭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환경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으로 보고 학교폭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장

주요어: 청소년, 학교, 폭력, 영화

Received Jan 9, 2019 Revised Feb 8, 2019 Accepted Feb 22, 2019

Corresponding author: Soo Jin Kim,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60, Baekseo-ro, Dong-gu, Gwangju 61469, Korea. Tel: +82-62-530-4951, Fax: +82-62-530-4937, E-mail: pinehillkim@naver.com

This manuscript is based on a part of the first author's doctor's thesis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http://crins530.jnu.ac.kr>

하고 있지만 폭력 발생요인을 모두 통합하여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환경에 대한 개인적 인식 및 태도의 변화는 교육적 노력에 의해서 극복할 수 있고, 폭력행동의 감소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2].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을 문헌을 통해 정리해 보면, 낮은 자기효능감이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규칙이나 도덕적 가치관들을 지키지 않으려는 도덕적 이탈이 높은 경향인 반사회성이 청소년의 인지적 특성으로 대두되고 있다[4]. 또한 불만과 좌절, 학교생활에 대한 의욕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정서불안, 청소년이 경험하는 정서 중 비행행동 및 학교폭력의 주요 유발인자로 여겨지는 분노가 있다[1]. 그리고 청소년기 사회기술은 자신을 잘 표현하고, 문제를 책임 있게 극복하며, 주변 인물들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학교폭력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5]. 공격성 또한 청소년 폭력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경우 일탈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더 많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6].

인지·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에 의하면, 인간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영역인 인지·정서·행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인지가 핵심이 되어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다[7].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해서 개인의 조절과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초점을 둔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인지·정서·행동치료 이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 가해자의 인지적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과 반사회성을, 정서적 요인으로는 정서적 안정성과 분노를, 행동적 요인으로는 사회기술과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최근 상담현장에서는 예술치료의 한 영역인 영화치료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치료란, 심리치료의 수단으로 영화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치료적 기법으로서 내담자가 영화보기를 즐기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높아지고, 영화를 보며 자신의 상상과 현실을 오가며 현재의 문제와 결부된 감정을 탐색하게 된다[8]. 특히 영상세대라 일컫는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영화는 과거 문학

이 차지했던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대신하면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책보다는 영화 속에서 더 자신에게 맞는 삶의 가치와 표현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어 상담 및 심리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영화의 장점은 수용자가 텍스트를 그럴듯하고 있음직한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강하고, 청각과 시각 문자 언어 모두를 동원하여 수용자의 지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9], 영화는 상담 장면에서 주의력이 결여되어 있고, 자극역치가 높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에게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심리치료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내담자들도 영화치료에서만큼은 일단 영화를 보거나 만든다는 놀이적 속성 때문에 치료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높아진 상황에서 치료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10], 학습적인 자극에 익숙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으며, 자기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한 안정감과 안도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낮은 동기와 비자발적인 청소년들에게 영화치료란 영화매체의 놀이적 속성이 활용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치료는 치료자 개입 없이도 영화를 보고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여 치료효과가 있는 자기조력적 영화치료와 영화를 매개로 치료자가 내담자의 삶의 어떤 측면을 통합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호작용적 영화치료로 나뉜다[11]. 국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화치료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정서조절력과 문제행동[12], 중학생의 분노조절[13]과 보호관찰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4]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의 변화를 위하여 인지·정서·행동치료 이론에 근거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 정신간호 중재방안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하여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여 청소년 정신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상호작용 영화치료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J시 교육청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로 보호관찰소에 의뢰된 만13~19세까지 청소년들 62명으로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자이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유의수준 $\alpha=0.05$, 집단 수($u=1$), 효과크기를 중간 이상인 .40, 검정력을 .80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표본크기 70명이 산출되었고, 실험군 35명과 대조군 35명을 임의 배정하였다. 연구 도중 불참한 대상자를 제외시켜 최종 대상자는 총 62명(실험군 29명, 대조군 33명)이었다.

자료수집은 프로그램 실시 1주일 전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의 프로그램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1주일 후 사전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 등[15]이 개발, Hong과 An [16]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재구성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총 23문항,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23~1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Hong과 An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85였다.

2) 반사회성

반사회성은 한국판 다면적 인성검사-청소년용(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Adolescent, MMPI-A) 문항 중 반사회성 척도를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의 점수범위는 환산점수 20~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사회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값은 .90이었다.

3) 정서적 안정성

정서적 안정성은 Cha [17]의 Big 5 성격검사 중 추출·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총 33문항,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33~16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a [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83이었고, 본 연구에서 .83이었다.

4) 분노

분노는 Novaco [18]가 개발, Namgung [19]이 번안 및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총 48문항, 3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48~14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Namgung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75였고, 본 연구에서 .95였다.

5) 사회 기술

사회 기술은 Gresham과 Elliott [20]가 개발, Moon [21]이 번안 및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고, 총 34문항, 3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34~102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기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Moon [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76이었고, 본 연구에서 .82였다.

6) 공격성

공격성은 Buss와 Durkee [22]가 개발, Sim [23]이 수정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총 48문항, 5점 척도로 점수범위는 48~2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Sim [2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값이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74였다.

4. 연구자 준비

본 연구자는 한국영상응용연구소 영화치료 강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수련감독자로 영화치료 강의와 상담현장에서 영화를 통한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연구보조원 2인을 활용하였다. 연구보조원 1인은 D 알콜전문병원 간호사로 정신보건간호사 2급 자격취득 후 한국영상응용연구소 영화치료 워크샵 3단계를 수료하였으며, 또 다른 1인은 J시 보호관찰소 교도관으로 한국영상응용연구소 영화치료 워크샵 3단계를 수료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 본 연구자는 연구보조

원에게 연구목적, 진행방법, 청소년 집단상담, 회기별 관찰 방법과 정리 등을 교육하였다.

5.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본 연구의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은 인지·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되었다(Table 1). 인지·정서·행동치료 이론은 대상자의 정서와 혼란과 관련있는 비합리적인 신념체계를 논박하여 이를 최소화하거나 합리적인 신념체계로 변화를 유도하며, 그 결과 긍정적인 정서적·행동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8]. 본 연구자는 문헌고찰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요인을 자기효능감, 반사회성, 정서적 안정성, 분노, 사회 기술, 공격성을 도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안정성 및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고, 반사회성과 분노 및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대상자를 영화 속 주인공과 동일시시키거나, 영화의 줄거리 중 자신들과 관계되는 장면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파악하고 극복하기 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 즉, 영화치료의 과정과 원리에 따라 영화보기 활동(동일시, 카타르시스), 토론활동(통찰문제해결 모델 찾기), 창조적 활동단계(영화 후 활동), 평가(후속조치 반성단계)로 프로그램을 체계화하였다. 영화치료의 치료적 기제인 놀이적인 속성, 심리적 안전거리 유지와 훔쳐보기, 은유, 동일시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과 상호작용적 영화치료 기법인 지시적 접근(관찰학습과 대리학습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연상적 접근(영화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연상적 기억을 통하여 무의식적인 내면세계를 의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림), 정화적 접근(다양한 감정 경험과 감정적 정화 및 정서적 고양 상태를 경험)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도입단계(1회기: 프로그램 소개 및 친밀감 형성), 시작단계(2~4회기: 인지적 요인 변화), 변화단계(5~6회기: 정서적 요인 변화), 유지단계(7~9회기: 행동적 요인 변화), 종결단계(10회기: 마무리)로 구성되었다. 각 회기는 도입, 주제와 관련된 영화에 대한 설명과 편집본을 상영하고, 구조화된 질문나누기 및 활동, 회기에 대한 느낌을 나누는 마무리로 진행되었으며, 개인 작업, 그룹 작업, 역할극, 모델링, 피드백, 게임 등 다양한 활동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회기에 사용된 영화와 영화상영 후의 구조화된 질문지는 한국영상응용연구소의 영화목록[24]을 참조하

고, 1인의 영화치료 전문가와 1인의 임상심리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의 특성과 각 회기의 목적과 주제에 맞게 선정하였다.

1) 도입단계(1회기: 프로그램 소개 및 친밀감 형성)

1회기는 프로그램에 소개 및 진행일정에 대한 설명과 연구자와 대상자의 자기소개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프로그램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대상자들이 긍정적인 언어로 직접 만들어 서약하게 하였다.

2) 시작단계(2~4회기: 자기효능감 증진과 반사회성 감소)

시작단계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반사회성을 감소시키는 단계였다. 폭력에 대한 개념과 심각성 인식을 위하여 영화 <폭력 씨클>을, 현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위하여 영화 <키드>를, 긍정적인 자아상 찾기를 위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3) 변화단계(5~6회기: 정서적 안정성 향상과 분노 감소)

변화단계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정서적 요인인 정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분노를 감소시키는 단계였다. 영화를 통하여 자신의 분노표출 상황을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문제로 지각되는 상황과 그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파악하게 하였고, 영화의 의미 있는 장면이나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등장인물의 감정과 그 원인을 찾아보고, 자신의 모습과 연결시켜 인식하도록 하였다. 또한 긍정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험을 통하여 정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분노감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자신의 분노 이해를 위해 영화 <똥파리>를, 합리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영화 <엔트윈 피셔>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4) 유지단계(7~9회기: 사회기술 향상과 공격성 감소)

유지단계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의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행동적 요인인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고,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단계였다. 영화의 의미 있는 장면이나 주인공의 모습을 역할극을 하면

Table 1. Interactive Cinema Therapy Program

Stage	S*	Subject	Activity	Rational/Emotive Behavior strategy		
Induction stage	1	Understanding program	Informing purpose of program and process			
		Building member intimacy	Introducing member and setting nick name Making program rule with positive word			
Starting stage	2	Recognizing About the violence	Warming up	Rational strategy		
			Introducing film <Gangster High> watching/Structured Questions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violence Understanding Verb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3	Understanding about myself	Warming up	Rational/Emotive strategy		
			Introducing film <Kid> and watching/Structured Questions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violence Self-examination about past, present and future Using of Film matrix and self-matrix on Film			
Changing stage	4	Recognizing a positive self-image	Warming up	Rational/Emotive strategy		
			Introducing film <Dead Poets Society> watching/Structured Questions Finding my strength and positive resource Finding my successful figure and resource for the success			
	5	Understanding my feeling of anger	Warming up	Rational/Emotive/ Behavior strategy		
			Introducing film <Breathless> watching/Structured Questions Making the anger list that makes me anger How I express my anger? Group Role Play			
Supporting stage	6	Expressing reasonable emotion	Warming up	Rational/Emotive/ Behavior strategy		
			Introducing film <Antwone Fisher> watching/Structured Questions Arranging resonable expression of anger of main character in the film			
	7	Understanding others	Warming up	Rational/Emotive strategy		
Ending stage	10	Fortifying my mind	Introducing film <Marvin's Room> watching/Structured Questions Active listening training with Group working	Rational/Emotive strategy		
			8	Solving the problem	Warming up	Rational/Emotive strategy
			9	Expressing myself on effective way	Introducing film <Marvin's Room> watching/Structured Questions Arranging the way main character tried for making dreams true. Warming up Introducing film <Marvin's Room> watching/Structured Questions Recognizing way of Communication through Good model and Bad model. Acquainting effective way of through Role play and I-message, conversational method learning	Rational/Emotive strategy
			Arrangement every film and activity used in whole session General Evaluation and positive feedback My change through program Set the goal and final arrangement	Rational/Emotive strategy		

S*: Session

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해 보며, 자신의 갈등 해결방법을 통찰하는 경험을 통하여 사회기술을 향상시키고,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자기표현 방법을 모색

해 보았다.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영화 <마빈의 방>을, 갈등해결하기를 위해 영화 <빌리 엘리어트>, 효과적인 자기표현을 위해 영화 <마빈의 방>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

였다.

5) 종결단계(10회기)

마무리하는 단계로, 전 회기 동안 작업했던 영화를 정리해 주고, 새로운 마음을 다잡하게 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보게 하였다. 소감문을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프로그램의 평가와 프로그램을 통한 나의 변화를 인식하게 하였으며, 대상자 전체가 서로 칭찬 피드백을 통해서 지지와 용기를 주게 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다잡하게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으로 먼저 보호관찰소 측과 보호자들의 동의가 있었으며,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수집된 자료는 익명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과 자료누출 방지 및 비밀유지, 연구종료 후 자료폐기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연구중단이 가능하다는 점과 참여 중단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고 대상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았다. 보호관찰소 교도관이었던 연구자 1인은 처음 1, 2 회기에는 참여하였으나 그 후 연구자와 대상자가 관계형성 후에는 또 다른 연구보조자 1인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2인의 연구보조자들은 대상자들의 비밀유지와 연구윤리를 잘 지켜줄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연구 종료 후, 대조군을 위하여 연구보조자 1인이 대조군에게 실험군에게 실시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과 동일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많은 문항에 대한 대상자의 설문참여에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표했고, 매 회기마다 충분한 간식과 다양한 활동에 대한 선물로 사례를 표하였다.

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은 χ^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은 paired t-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가 54.8%, 여자가 45.2%였으며, 학년은 고등학생이 56.5%, 중학생이 43.6%였다. 대상자의 가족관련 특성 중 경제적 상태는 '중류층'이 37.1%이고, '중하류층'이 37.1%였다. 아버지와의 대화 정도는 '간혹 하는 경우'가 33.9%로 가장 많았고, '거의 안하는 경우'가 30.6%, '전혀 안하는 경우'가 22.6% 순이었으며,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도 '간혹 하는 경우'가 50.0%로 가장 많았고, '거의 안하는 경우'가 27.4% 순이었다. 대상자의 학교 관련 특성으로는, 성적이 '하'가 48.4%로 가장 많았고, '중하'가 35.5% 순으로 대체적으로 성적이 낮았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는 '나쁘다'가 35.5%로 가장 많았고, '좋다'가 17.7%, '매우 나쁘다'가 12.9% 순으로 친구관계는 대체로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친구와의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가 '보통'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하는 경우'가 33.9% 순으로 나타나 고민을 친구와 상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업의 집중도는 '별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집중하는 경우'가 14.5% 순으로 높게 나타나 수업에 집중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2).

2. 대상자 동질성 검증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자기효능감($t=1.66$, $p=.103$), 반사회성($t=1.61$, $p=.113$), 정서적 안정성($t=-.36$, $p=.717$), 분노($t=.26$, $p=.793$), 사회기술($t=-.00$, $p=.997$), 공격성($t=.82$, $p=.419$)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프로그램 효과검증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기효능감 ($t=-9.57$, $p<.001$), 반사회성($t=5.76$, $p<.001$), 사회기술($t=-10.50$, $p<.001$), 공격성($t=4.41$,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정서적 안정성($t=.02$, $p=.986$), 분노($t=.06$, $p=.953$)는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4).

Table 2. Homogeneity Te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62)

Characteristics		Exp. (n=29)	Cont. (n=33)	Total (n=62)	χ^2	<i>p</i>
		n (%)	n (%)	n (%)		
Gender	Male	12 (41.4)	22 (66.7)	34 (54.8)	2.29	.139
	Female	17 (58.6)	11 (33.3)	28 (45.2)		
Grade	Middle school	11 (37.9)	16 (48.5)	27 (43.6)	4.03	.133
	High school	18 (62.0)	17 (51.5)	35 (56.5)		
Economic state	High	2 (6.9)	4 (12.1)	6 (9.7)	0.50	.919
	Upper middle	11 (37.9)	12 (36.4)	23 (37.1)		
	Lower middle	11 (37.9)	12 (36.4)	23 (37.1)		
	Low	5 (17.2)	5 (15.2)	10 (16.1)		
Communication with father	Often	3 (10.3)	5 (15.2)	8 (12.9)	1.05	.788
	Sometimes	10 (34.5)	11 (33.3)	21 (33.9)		
	Seldom	8 (27.6)	11 (33.3)	19 (30.6)		
	Never	8 (27.6)	6 (18.2)	14 (22.6)		
Communication with mother	Often	3 (10.4)	4 (12.1)	7 (11.3)	.59	.898
	Sometimes	15 (51.7)	16 (48.5)	31 (50.0)		
	Seldom	7 (24.1)	10 (30.3)	17 (27.4)		
	Never	4 (13.8)	3 (9.1)	7 (11.3)		
Academic achievement	Very good	2 (6.9)	0 (0.0)	2 (3.2)	4.53	.339
	Good	1 (3.4)	3 (9.1)	4 (6.5)		
	Moderate	2 (6.9)	2 (6.9)	4 (6.5)		
	Poor	8 (27.6)	14 (42.4)	22 (35.5)		
	Very poor	16 (55.2)	14 (42.4)	30 (48.4)		
Relationship with peer	Very good	3 (10.3)	0 (0.0)	3 (4.8)	8.68	.070
	Good	8 (27.6)	3 (9.1)	11 (17.7)		
	Moderate	8 (27.6)	10 (30.3)	18 (29)		
	Poor	7 (24.1)	15 (45.5)	22 (35.5)		
	Very poor	3 (10.3)	5 (15.2)	8 (12.9)		
Communication of trouble with peer	Very good	4 (13.8)	2 (3.2)	6 (9.7)	2.31	.679
	Good	8 (27.6)	13 (39.4)	21 (33.9)		
	Moderate	14 (48.3)	13 (39.4)	27 (43.5)		
	Bad	2 (3.2)	4 (12.1)	6 (9.7)		
	Very poor	1 (3.4)	1 (3.0)	2 (3.2)		
Attention in class	Very good	11 (37.9)	12 (36.4)	1 (1.6)	2.57	.633
	Good	11 (37.9)	12 (36.4)	9 (14.5)		
	Moderate	5 (17.2)	5 (15.2)	20 (32.3)		
	Poor	3 (10.3)	5 (15.2)	26 (41.9)		
	Very poor	10 (34.5)	11 (33.3)	6 (9.7)		

Table 3. Homogeneity Test of the Dependent Variable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N=62)

Dependent variables	Exp. (n=29)	Cont. (n=33)	<i>t</i>	<i>p</i>
	M±SD	M±SD		
Self-efficacy	65.65±7.38	62.06±3.39	1.66	.103
Anti-sociality	59.14±11.95	54.88±8.81	1.61	.113
Emotional stability	107.45±20.05	110.12±16.92	-0.36	.717
Anger	89.10±15.89	88.12±13.47	0.26	.793
Social skill	68.21±8.10	68.21±4.33	-0.00	.997
Aggression	146.28±14.78	143.76±11.64	0.82	.419

Table 4. The Effect of a Interactive Cinema Therapy Program

(N=62)

	Pre		Post		Paired t				Difference		t	p
	M (SD)		M (SD)		t		p		M (SD)			
	Exp. (n=29)	Cont. (n=33)	Exp. (n=29)	Cont. (n=33)	Exp. (n=29)	Cont. (n=33)	Exp. (n=29)	Cont. (n=33)	Exp. (n=29)	Cont. (n=33)		
Self-efficacy	65.65 (7.38)	62.06 (3.93)	82.62 (4.40)	61.90 (5.59)	-13.29	0.12	.00	.90	-16.97 (6.87)	0.16 (7.16)	-9.57	.001
Anti-sociality	59.14 (11.95)	54.88 (8.81)	53.55 (9.15)	57.61 (7.93)	1.87	-2.28	.07	.01	5.59 (5.62)	-2.73 (5.74)	5.76	.001
Emotional stability	107.45 (20.05)	110.12 (16.92)	110.24 (22.00)	113.00 (16.09)	-1.10	-0.69	.28	.49	-2.79 (13.67)	-2.88 (23.87)	0.02	.986
Anger	89.10 (15.90)	88.12 (13.47)	86.21 (15.35)	85.48 (15.27)	1.25	0.70	.22	.49	2.90 (12.45)	2.64 (21.54)	0.06	.953
Social skill	68.21 (8.10)	68.21 (4.33)	83.55 (6.14)	68.79 (3.85)	-13.16	-0.73	.00	.47	-15.35 (6.28)	-0.58 (4.52)	-10.50	.001
Aggression	146.28 (14.78)	143.76 (11.64)	134.52 (10.77)	143.76 (10.29)	5.32	0.00	.00	.91	3.68 (2.21)	-8.52 (1.49)	4.41	.001

논 의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폭력 감소와 예방을 위하여 REBT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 향상과 반사회성 감소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Kim 등[25]의 연구에서도 일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안정성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왔다. Choi와 Kim [26]의 연구에서도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반사회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반사회성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중 하나이며, 자기 효능감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나 칭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반사회성을 감소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명하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기 위하여 영화 <키드>를 통해 대상자들의 현재 자신의 모습 통찰과 어렸을 때 자신이 바라던 삶을 살고 있는지 필립 매트릭스와 셸프 매트릭스를 통해 고민해 보게 하였다. 작업을 통해서 대상자들은, "저는 30년 후의 러스타가 제일 호감이 가요. 자기 과거의 러

스티에게 자신처럼 되지 않도록 과거에 있었던 일을 알려줘서 희망이 생기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과거를 보러 온 거 같아요. 자신이 인생의 패배자라는 생각을 버리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아요"라고 반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반사회성 감소를 위해 '긍정적 자아상 찾기'를 목적으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잠재된 능력을 인식하기 위하여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찾아가는 능동적인 인간이 되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대상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이 능력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작업을 통해 대상자들은, "아이들이 잃었던 자신감을 차근차근 선생님이 찾아주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어떤 장면 이라고는 표현하기 힘든데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꿈을 심어주잖아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라고 반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었다. Bandura는 행동의 실제적 원인으로서 인지적 역할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의 모델링 원리를 적용한 많은 연구들은 대중매체에서 보여주는 폭력적인 공격성을 청소년들이 대리적 학습을 통해 모방한다는 것을 입증해 왔다. 또한 개인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성공, 문제해결, 적응을 위해 필요한 주요 심리적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능력의 지표로 제공되는 성공경험, 다른 사람의 성취와 비교를 통해 효능감을 변화시키는 대리적 경험(모델링), 언어적 설득 등이 있다

고 하였다[27]. 본 연구의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개인 활동, 그룹작업, 역할극 등의 기법을 통해 과거에 해보지 못했던 일, 또 현재와 미래의 원하고자 하는 일 등을 해 봄으로써 성공경험을 체험하고 대리적 경험(모델링), 즉 모방된 성취를 통해 자기 개인 효능감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언어를 통해 주장하고, 다양한 감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은 흔히 자기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과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외부 지지를 받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조종하려고 하는데 본 연구의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은 대상자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자기지지를 배우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과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정서적 요인인 정서적 안정성과 분노는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집단 상단이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의 정서적 안정성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Kim 등[25]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Choi와 Kim [13]의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분노조절과 공격성 감소를 나타낸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지만 공격성 하위척도 중 언어적 공격성과 분노감은 증가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분노 이해’를 목적으로 <똥파리>를 선정하였고, 무분별한 폭력이 자행되면서 폭력의 본질에 대해 직면하게 하는 영화를 통해 대상자들은 주인공의 분노에 감정이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용 받지 못하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학교폭력 청소년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의 분노와 집단 구성원 자신의 분노를 가중시킨 비합리적 사고를 파악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그룹을 나누어 역할극을 구성하여 발표하게 하였다.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에 몰입되어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고, 작업을 통해 “주인공 역할을 직접 해 보면서 화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해 보니 시원해요, 하지만 주인공의 감정이 이해되기는 하지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카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장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불우하게 자랐지만 조카한테 만큼은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마음을 잘 표현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행동은 거칠지만 따뜻

한 마음이 느껴졌어요”라고 반응하였다. 또한 분노 조절을 위해 ‘합리적 방법으로 분노표현’을 목적으로 <엔트윈 피서>를 선정하였는데 자신의 문제는 나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하였다. 영화와 연결시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분노를 합리적으로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및 적절한 분노표출 방법을 연습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표현하기 힘들어했지만 차츰 화를 지연시키기도 하고,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방법들에 호기심을 나타내며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화감상 후 활동지 작업을 통해 주인공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분노 대상자에게 합리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주인공이 ‘난 아직 강인하고 건재하다’고 외치는데요. 진짜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한 것 같아 부러웠어요”, “용기와 자신감이에요. 어려서부터 성폭행도 당하고, 심하게 매를 맞았는데도 나중에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들을 찾아가 말하는 게 부러웠어요” 라고 반응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서적 요인으로 도출시킨 정서적 안정성과 분노는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개입에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Schulenberg [28] 및 Hesley와 Hesley [29]의 영화치료는 정서적인 면에서 내적인 억압을 풀고 정서를 활성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는 첫째,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이라는 점, 둘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 내용이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흥미 유발에 미흡했었을 수 있는데 대부분 회기가 상호작용적 영화치료 기법 중 지지적 접근인 관찰학습, 대리학습으로 구조화되고, 학습적인 내용과 인지·정서·행동치료 기법의 인지기법과 행동기법으로 구성된 점, 셋째, 보호관찰소라는 억압된 환경에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더욱 명료하게 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향후 학교폭력 가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다양한 영화치료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 효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행동적 요인인 사회기술 향상과 공격성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Kim과 Ahn [30]의 연구의 영화치료가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데 지속적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지지되었고, Choi와 Kim [13]의 영화를 활용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중학교 남학생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밝힌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인 자기표현’을 목적으로 7 회기에 선정한 〈마빈의 방〉을 다른 관점으로 편집하였다. 상대방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에 공감하는 경험을 위하여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비난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상대방의 감정을 명료화하는 대화법’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나누고, 역할극을 통해 의사소통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또한 영화 속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Good Model’과 ‘Bad Model’을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나-전달법을 통하여 현재 자기인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전달법과 자기주장훈련에서 대상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어려워하였지만 차츰 자신감 있게 자기표현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잘 안 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다. 작업을 통해 대상자들은, “행크가 이모한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는 장면이요. 어머니는 너무 강압적이어서 표현하지 못했는데 이모는 행크가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들으려고 해서 행크가 정말 감동한 것 같아요”, “이모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진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행크가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해요”라고 반응하였다. 또한 공격성 감소를 위하여 ‘문제해결하기’를 목적으로 〈빌리 엘리어트〉를 통하여 주인공이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간절한 바람으로 주위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나가는 과정을 통찰하게 하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현실이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색하게 하였다. 어려웠던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대상자들이 자신을 주인공에 이입시키면서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작업을 통해, “빌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노력해서 성공했잖아요, 빌리가 꿈을 이루는 것은 정말 위대해 보였어요. 나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나도 빌리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내 꿈을 이루고 싶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영화치료는 현실적 문제를 개인이 수습하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사회적 기술을 제공하며, 그 효과 또한 크다. 즉, 대상자들이 비록 현실에서는 어렵더라도 허구의 세계를 빌어 대리해소, 간접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영화를 통

해 그들의 억눌린 욕망, 갈등을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해결 능력도 기르게 되고, 상상력과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12].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게임을 좋아하고 영상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에게 ‘영화’라는 매체가 치료 프로그램에서 치료적인 도구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Choi와 Kim [13]의 연구가 지지되었고, 영화는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표출시키고 사고적인 상담과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며, 역할연기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 및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치료적인 효과를 보여준 Kang과 Cheon [12]의 연구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은 영화의 다양한 치료적 효과 중 특히 자신의 문제를 안전한 거리에서 인식하고, 주인공에 대한 동일시 및 모델링을 통한 관찰학습과 부정적이고 억압된 감정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영화 장면들의 역할극은 대상자들이 영화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표현을 통하여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표현해 내는 체험을 하였고, 재미있고 적극적인 참여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의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와 그 결과로 파생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자신에 대한 통찰을 경험하였다. 영화치료를 하는 동안 내담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메타포를 받아들여 통찰을 촉진시키며, 개인적 이해를 심화한다고 보았던 Wedding과 Niemiec [8]의 주장대로 대상자들은 토론과 역할극을 하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게 되었고, 올바른 감정표출과 자기표현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영화를 통하여 심리적인 안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억압된 정서분출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억제’와 대인관계 상에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며 자기 주장적이 되게 하는 ‘비 주장성’을 낮추는데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다는 Kim과 Ahn [3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보다 더 영화속 인물이나 내용에 대해 동일시되어 그 느낌을 잘 통찰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 이는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의 현실과 영화속에서 상정된 문제를 일치시킴으로써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치유할 수 있다는 치료법으로 영화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효과를 입증한 Kang과 Cheon [12]의 선행연구를 지지하였다.

이와 같이, 영화는 내담자가 부인하는 감정에 도전하고 인

지, 정서, 행동 사이에 연관을 맺어 주기 때문에 영화치료는 다른 어떤 예술치료보다도 내담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에서 공감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사람의 관념이나 생각을 바꾸는데 있어 영화의 동일시 기능은 가장 적극적인 교육매체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관심 있는 영화를 활용하면 상담 및 심리치료를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영화치료는 영화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중의 하나인 꿈, 환상, 기억, 환각 등 인간 내면의 특수한 마음상태를 발견하고 숨겨진 자아를 캐내어 그것을 재현해내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영화를 보는 내담자의 마음 속에서 생성되는 시각적 영상은 유동적이며 변형되어 개인의 아픈 상처에 영향을 미쳐 마음에 새로운 정화라는 변화된 속성으로 나타나게 된다[28]. 영화는 더 이상 예술로서 만의 장르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영화는 소외되어 가는 현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사회적 관계의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해 REBT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호관찰소에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이라는 특수한 대상자를 위하여 영화치료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폭력행동 감소 및 예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므로 청소년 정신간호 중재프로그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폭력감소와 예방을 위해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고 청소년 정신간호중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연구이다. 연구결과, REBT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프로그램은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기술의 향상, 반사회성 및 공격성의 감소에는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지만, 정서적 안정성 향상과 분노 감소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

로그램 실시와,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보는 것을 제언한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정서적 조절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셋째, 영화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영화치료프로그램 집단, 일반상담집단,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언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지속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추후검사를 제언한다.

Conflict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 Hur J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its efficient countermeasure - centered on the review of the comprehensive plan of the government for the elimination of school violence. *The Justice*. 2013;134(3):118-140.
- Moon YL. School violence and preven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Research*. 2005;12:3-11.
- Farrington DP, Loeber R. Epidemiology of juvenile violenc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000;9(4):733-748.
[https://doi.org/10.1016/S1056-4993\(18\)30089-0](https://doi.org/10.1016/S1056-4993(18)30089-0)
- Tak SY, Park YS, Kim UC. A case study through counseling for adolescents under probatio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05;14(1):69-81.
- Ahn KS, Song KB, Lee WY. A study on effects of adolescent's social skill and self-control ability on internet addi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3;20(11):335-365.
- Baldry AC, Farrington DP. Brief report: types of bullying among Italian school children. *Journal of Adolescence*. 1999;22(3):423-426.
<https://doi.org/10.1006/jado.1999.0234>
- Park KY. *Cognitive emotive behavior therapy*. Seoul: Hakjisa; 1997.
- Wedding D, Niemiec RM. The clinical use of films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3;59(2):207-215. <https://doi.org/10.1002/jclp.10142>

9. Dermer SB, Hutchings JB. Utilizing movies in family therapy: applications for individuals, couples, and famili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0;28(2):163-180. <https://doi.org/10.1080/019261800261734>
10. Nicols MP, Schwartz RC.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4th ed. Boston: Allyn and Bacon; 1998.
11. Kang EJ, Cheon SM. The effects of a group cinemathe-
rapy program on automatic thoughts and empathy rating
scale for adolescents and analysis of therapeutic factors.
The Journal of Humanities. 2010;15(1):213-234.
12. Kang EJ, Cheon SM. The effect of a group cinematherapy
program on the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prob-
lem behaviors of the youth at-risk.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011;19(2):23-46.
13. Choi YH, Kim EJ. The effects of a movie-based anger
control program o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ggres-
sivenes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
therapy*. 2009;21(3):625-641.
14. Jeong IJ, Kim SJ. The effect of career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cinema on self identity, career deci-
sion-making self-efficacy of adolescent on prob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011;24(2):164-172.
15. Shere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
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
51(2):663-671.
<https://doi.org/10.2466/pr0.1982.51.2.663>
16. Hong HY, An HS. The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anxiety and career indecision on high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9;16(7):
149-175.
17. Cha ES. The effect group music therapy on the emotional
stability and the self-efficacy of juvenile delinquents
[dissertation]. Iksan: Wonkwang University; 2006.
18. Novaco RW.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Monahan J, Steadman HJ, editor.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developments in risk
assessmen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p. 21-59.
19. Namgung HS. The effect of anger control program: on
students of elementary student.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1997.
20. Gresham FM, Elliott SN.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inn.: American Guidance Service;
1990.
21. Moon SW. Development of a computer-mediated psy-
chological service model.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99;11(1):63-78.
22. Buss AH, Durkee A.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57;21(4):343-349. <https://doi.org/10.1037/h0046900>
23. Sim SW. The relationship among the children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aggression [master's the-
sis].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0.
24. The Korean Institute of Film Application KIFA Film List.
Seoul: The Korean Institute of Film Application; 2009.
25. Kim HS, Han MK, Cheo SM.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offered school violence. *Journal of Evaluation on Coun-
seling*. 2010;3(2):47-57.
26. Choi BN, Kim NJ. The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moral improvement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con-
duct disorder tendency in adolescence: focused on wil-
son's moral components.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010;7(3):353-369.
<https://doi.org/10.16983/kjssp.2010.7.3.353>
27. Noh AY, Kang YS. *Personality psychology*. Seoul: Hakjisa;
2003.
28. Schulenberg SE. Psychotherapy and movies: on using
film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2003;33(1):35-48.
<https://doi.org/10.1023/A:1021403726961>
29. Hesley JW, Hesley JG. *Rent two films and let's talk in the
morning: using popular movies in psychotherapy*. 2nd
ed. New York: Wiley; 2001.
30. Kim SJ, Ahn CY. A pilot study on improving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rough cinematherapy.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5;17(2):353-366.